

중동 '모래바람'을 뚫어라

남아공월드컵 표 최종 예선 '죽음의 조' 편성 이란·사우디·UAE와 힘겨운 승부 북한과 '남북 대결'도 쉽지 않을 듯

한국 축구가 중동의 거센 모래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한국은 27일(한국시간) 오후 6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조추첨에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북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B조에 편성돼 힘겨운 본선 티켓 경쟁을 벌이게 됐다.

반면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호주,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카타르와 함께 A조에 속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본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FIFA랭킹 45위인 한국은 최근 3차례 맞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북한(118위)과 재대결을 펼쳐야 하며 중동의 강호 이란(48위), 사우디아라비아(54위), UAE(95위)의 모래바람을 뚫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란은 월드컵 본선에 세 차례(1978, 1998, 2006년) 출전한 아시아 전통의 강호로 역대 A매치 전적은 8승5무8패로 호각지세다. 지난해 아시안컵 예선에서도 1무1패를 기록한 뒤 본선 8강에서 0-0 무승부 뒤 승부차기 끝에 4-2로 이기는 등 힘겨운 경기를

펼쳐왔다. 더구나 이란 원정에서는 1무2패로 단 한 번도 승전보를 전해보지 못했다. 사우디와는 1989년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탈리아월드컵 예선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19년 동안 여섯 차례 만나 3무3패만을 기록했다. 역대 전적은 3승6무5패로 최종예선 진출 10개국 중 한국이 맞대결 전적에서 뒤지는 상대는 호주(5승8무7패)와 사우디

A조		B조	
1	호주	1	대한민국
2	일본	2	이란
3	바레인	3	사우디
4	우즈베키스탄	4	북한
5	카타르	5	UAE

각 조 1~2위가 본선 직행권을 따내고 3위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한 팀을 추려 오세아니아지역 최종예선 1위 팀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1장의 본선 진출권을 가릴 예정이다. /연말뉴스

가장 무난한 상대로 꼽히는 UAE와는 7승5무2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1무1패를 거두고 있지만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2006년 UAE 두바이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 0-1로 패한 경험이 있다. 북한과의 역대 전적은 5승6무1패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 1-1 무승부 이후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과 3차예선 마지막 대결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등 만만치 않은 팀이다. 다섯 팀씩 두 개조로 치러지는 최종예선은 오는 9월6일부터 내년 6월17일까지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팀 당 8경기를 치른다. 랭킹 1, 2위인 호주와 한국은 9월10일 원정 경기로 최종예선을 시작한다. 각 조 1, 2위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러 승자가 오세아니아연맹(OFC) 예선 1위 팀과 마지막까지 본선 티켓을 다툰다. /김여울기자Wool@연말뉴스



'신세대 삼총사' 메이저 킨 꿈꾼다

US여자오픈 첫날 선두권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신세대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과 김승희(20·힐라코리아), 신지애(20·하이마트)가 최고 수를 28개로 줄인 것이 좋은 성적을 낸 역사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63회 US 여자오픈 첫날을 힘차게 열어 줬다. 27일(한국시간) 미네소타주 에디나 인터라켄골프장(파73·6천789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오지영은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쓸어 담았다. 김승희와 신지애는 6타를 잃어 버디를 잡으며 상상을 타다 17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잠시 주춤했다. 오지영은 파3홀을 제외한 14개홀에서 페어웨이는 단 한 차례만 놓쳤고 그린 적중률 88.8%에 이르는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코스를 공략했다. /연말뉴스

오지영과 함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김승희도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5언더파 68타, 3위로 첫날을 마쳤다. 안정된 드라이브샷과 아이언샷에 퍼트 수를 28개로 줄인 것이 좋은 성적을 낸 원동력이었다. 한국대회 3개를 포기하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한 지존 신지애도 출발이 좋았다. 전반에 1타를 줄인 신지애는 10번홀(파5)부터 12번홀(파3)까지 3개를 연속 버디를 잡으며 상승세를 타다 17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마지막 홀에서 기본 좋은 버디를 추가한 신지애는 4언더파 69타를 쳐 공동 4위에서 2라운드를 시작한다. /연말뉴스



27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에서 벌어진 유로 2008 스페인과 러시아의 준결승전에서 스페인의 다니엘 구이iza(왼쪽에서 두 번째)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말뉴스

최혜용 우승

KLPGA 롯데마트 행복드림컵

아시아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함작했던 동갑내기 특급 신인 유소연(18·하이마트)과 최혜용(18·LG)이 벌이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신인왕 경쟁이 불만해졌다. 신인왕 레이스 2위 최혜용은 27일 제주 스키아일랜드골프장(파72·6천275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MBC투어 롯데마트 행복드림컵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유소연을 3타차 2위로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다. 최혜용은 이번 우승으로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여자오픈에서 먼저 우승을 신고했던 유소연과 승수 경쟁에서 균형을 맞췄고 신인왕 포인트도 종전 108점 차이에서 38점 차로 좁혔다. /연말뉴스

여수 國體 성화봉송자 모집

여수시가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 89회 전국체전의 성화봉송 주자 144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성화봉송 주자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소와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으로 1km를 6분 이내에 완주할 체력을 갖춰야 한다. 신청서는 다음달 25일까지 시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로 접수하면 된다.

'전차군단' vs '무적함대'

〈독일〉 〈스페인〉

스페인, 러시아 3-0 꺾고 결승행 ... 30일 독일과 일전



'히딩크 마법'을 잠재운 '무적함대' 스페인이 통산 네 번째 정상에 도전하는 '전차군단' 독일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독일과 스페인은 30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 에른스트하펠 슈타디온에서 2008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영국의 세계적 스포츠 베테랑 전문업체 윌리엄힐과 래드브록스 등은 독일의 우승확률을 가장 높게 점쳤다. 두 번째 우승 후보로 꼽은 것이 스페인이었다. 12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독일은 유럽선수권대회 최다 우승팀이자 결승 진출팀이다. 1972년부터 3회 연속 결승에 올랐고, 1992년과 1996년에 이어 이번에 통산 여섯 번째 결승을 치른다. 독일은 지난 다섯 번의 결승에서 세 차례(1972년, 1980년, 1996년)나 승리, 우승트로피 앙리들로네컵을 들어 올렸다. 스페인의 유럽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은 1984년 준우승

이후 24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다. 스페인은 어느 대회든 우승 후보로 거론될 만큼 막강 전력을 갖췄다. 하지만 월드컵과 유럽선수권대회 등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1964년 자국에서 열린 유럽선수권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44년 동안 징크스라 불릴 만큼 우승과 인연을 쌓지 못했다. 이번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기회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는 독일이 8승6무5패로 앞서 있다. 유럽선수권대회에서도 네 차례 만나 독일이 2승1무1패로 다소 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는 두 번 맞부딪쳐 1승1패를 기록했다. 독일은 이번 대회에서 합계 결승까지 올랐다. 조별리그에서 크로아티아에 일격(1-2 패)을 당해 A조 2위로 8강에 오른 뒤 포르투갈과 터키를 각각 3-2로 꺾었다. 특히 터키와 준결승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필리프 램의 천금 같은 결승골로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 세 골로 대회 득점왕 경쟁을 다투고 있는 루카스 포돌스키를 비롯해 주장 미하엘 발라크, 미로슬라프 클로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이상 2골) 등의 활약에 다시

조	1위	2위
A조	스페인	그리스
B조	독일	영국
C조	러시아	프랑스
D조	네덜란드	체코

그래도, 역시 히딩크

러시아 4강 '신선한 충격'

거스 히딩크(62) 감독이 러시아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2008 유럽 축구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지도력은 크게 빛났다. 히딩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러시아는 27일 오전(한국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로2008 4강에서 후반에 세 골을 내주며 '무적함대' 스페인에 0-3으로 완패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유로대회 준결승에 진출, '히딩크 마법'은 세계 축구에 다시 한번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결승 진출 실패로 실망감이 컸지만 히딩크 감독은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 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이라는 좋은 성적을 낸 우리가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연말뉴스



기대를 건다. 우승을 위해 절치부심해 온 스페인은 조별리그 3전 전승 포함, 유일하게 무패행진으로 결승까지 올랐다. 특히 준결승에서는 조별리그에서도 4-1로 완파했던 러시아를 다시 만나 3-0으로 깔끔하게 돌려세우며 '히딩크 마법'을 깨뜨리는 등 고공행진을 했다. 다만 4강로 대회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는 다비드 비야가 부상으로 결승을 치르기가 힘들다는 것이 걸린다.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주전 공격수 페르난도 토레스의 득점포도 살아야 한다. /연말뉴스



- 28일 (토)
 - ▲WBA, WIBA 여자 라이트플라이급 통합 타이틀매치(김주희 : 린진 메이)(14 : 30·KBS N SPORTS)
 - ▲2008 K 리그 〈서울 : 부산〉(20 : 30·MBC ESPN·SBS스포츠)
 - ▲2008 프로야구(한화 : SK)(16 : 30·KBS N SPORTS), 〈LG : 우리〉(17 : 00·MBC ESPN), 〈KIA : 롯데〉(16 : 40·SBS스포츠), 〈삼성 : 두산〉(16 : 50·XSPORTS)
- 29일 (일)
 - ▲2008 US 여자오픈 골프 3R (04 : 00·MBC ESPN)
 - ▲2008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 클리블랜드〉(07 : 55·XSPORTS)
 - ▲2008 프로야구(한화 : SK)(16 : 30·KBS N SPORTS), 〈LG : 우리〉(17 : 00·MBC ESPN), 〈KIA : 롯데〉(16 : 40·SBS스포츠), 〈삼성 : 두산〉(16 : 50·XSPORTS)
 - ▲2008 K 리그 (20 : 30·SBS스포츠)
- 30일 (월)
 - ▲2008 US 여자오픈 골프 최종R (04 : 00·MBC ESPN)
 - ▲2008 PGA 뷰익 오픈 3R (04 : 00·SBS 골프·SBS스포츠)